

함평군, 지역 청년인구 늘리기 사업 '박차'

1월 기준 6632명 전체 대비 22% 2027년 까지 맞춤 프로그램 제공 지역인재 취업교육 지원사업 등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급 지속

함평군이 청년인구 유입을 위한 청년 지원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6일 함평군에 따르면 지난 1월말 기준 함평군 청년 인구수는 6632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22.2%를 차지한다.

함평군은 청년인구 유입을 위해 올해 인구정책의 핵심 타깃을 청년으로 설정하고 기존에 추진 중이던 청년 지원사업에 더해 굵직한 사업을 추진하며 사업에 힘을 실을 방침이다.

먼저 오는 2027년까지 30억원 이상을 투입해 지역 특성에 맞는 청년 공유공간 조성 및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행복한가(家)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지역 고등학생 등 취업 준비생을 대상

으로 올해부터 4년간 전문 상담사를 활용한 일자리 상담 및 박람회, 지역맞춤형 취업 교육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지역인재 맞춤형 취업교육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예비 청년창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1억원을 지원해 전국에서도 손에 꼽히는 규모로 추진 중인 '청년 스트리트캠퍼스 조성사업'은 올해 마무리를 앞두고 있으며 올 연말까지 20개 이상의 청년창업 점포가 지역 곳곳에 새롭게 문을 열 전망이다.

함평군은 기존 사업들 추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교부세 감액 등 악화된 재정 여건 속에서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3년간 600만원)'과 '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연 25만원)'은 올해 지원 금액을 동결했다.

호평을 받고 있는 인재양성장학금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지역 구분 없이 등록금(실납부액) 전액은 물론 생활

비 명목의 학업장려금도 매 학기별 1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밖에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4년간 최대 2000만원),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최대 12개월간 월 20만원), 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연 25만원),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사업(매월 10만원 적립 시 10만원 추가 적립),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주택구입

대출이자 실제 납부액 월 최대 25만원) 등이 현재 접수를 받고 있거나 상반기 중 공고할 계획이다.

이상의 함평군은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핵심은 청년이다"며 "앞으로도 신규 시책 발굴 등을 통해 청년들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함평=신재현 기자



농업인 정보화 교육 수강생 모집 담양군, 전산화 능력 강화

담양군은 스마트 농업환경과 지식정보화 사회에 빠르게 대처하고 SNS 활용 등 시대 흐름에 걸맞은 디지털 농업인으로 육성하기 위해 올해도 농업인 정보화 교육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2025년도 농업인 정보화 교육'은 스마트폰 활용(안드로이드), 한글문서 만들기, 파워포인트 활용, 엑셀 활용, AI와 함께하는 디지털 세상, 디지털 공간:블로그 만들기, 영상 제작 기초와 활용을 주제로 디지털 농업에 필요한 7개 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과정 당 20명씩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 교육은 농업기술센터 2층 농업인정보화교육장에서 실시되며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과정별로 주 5일(월-금), 2~3시간씩 교육이 이뤄질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인력육성팀(061-380-0123)으로 문의하면 된다.

담양군 관계자는 "최근 SNS를 통해 농가홍보와 고객관리가 활발하게 이뤄짐에 따라 정보화 교육은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며 "교육을 통해 블로그와 카페, 홈페이지 등을 개설해 농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사이버 전문 지식 농업인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신재현 기자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영광군, 105개소 대상

영광군은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사업을 105개소에 2억54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사업은 조리 및 급식 장소가 갖춰져 있고 20명 이상 공동급식이 가능한 마을을 대상으로 농번기 중 25일 이내에서 탄력적으로 공동급식을 할 수 있도록 개소 당 242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오는 26일까지 각 읍·면사무소에서 사업 신청을 접수해 본격적인 영농철 이전에 대상마을을 선정하고 참여마을 대표 및 조리원에 대한 사업설명회와 식중독 예방법 등 위생교육을 실시한 후 추진할 계획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농번기 여성 농업인의 가사 부담을 줄이고 농촌마을의 공동체 의식을 되살리는 의미 있는 사업인 만큼 당초 78개소에서 105개소로 준비를 추가 확대해 추진한다"고 말했다.

영광=김도윤 기자

주말농장 선착순 임대 분양 본량농협, 2월 말까지

농협광주본부(본부장 이현호)는 본량농협(조합장 정상윤)이 소유한 광산구 지산동 일원 주말농장을 2월 말까지 선착순 임대 분양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분양되는 주말농장은 총 면적 1493평(약 4935㎡)으로 7평형(42구획)과 10평형(48구획)으로 나뉘어 총 90구획이 제공된다.

분양 금액은 각각 6만원과 7만원이다. 농장에는 주차장, 화장실, 농기구 창고, 세척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과 관수시설을 완비해 농사 체험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제공한다.

신청은 광주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본량농협(062-943-9780)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정상윤 조합장은 "도시민들이 직접 농산물을 재배하고 수확하면서 자연의 소중함을 느끼고 건강한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선용 기자



지난 11일 담양군 대전면 주민자치회 주관으로 '제7회 대전면 천년느티 당산제'가 열렸다. 대전면 마을 주민들이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며 절을 하고 있다. 담양군 제공

담양군 대전면, 천년느티 당산제

담양군 대전면이 지난 11일 오후 한재 초등학교 느티나무 아래에서 '제7회 대전면 천년느티 당산제'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16일 담양군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대전면 주민자치회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100여명의 주민들이 참석해 전통 세시풍속을 함께 즐기고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했다.

이날 행사는 정월대보름을 맞아 마을의 수호신에게 한 해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당산제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어 주민들이 새끼줄에 각자의 소망을 담은 소원지 걸기를 통해 가족의 건강과 마을의 번영을 기원하고 전통 민속놀이인 지신밟기와 신명 나는 풍물놀이가 어우러지며 행사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다.

대전면의 상징인 천년 느티나무 아래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주민들에게 전통문화의 의미를 되새기는 동시에, 세대간의 화합과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주민들은 함께 웃고 소통하며 정월대보름의 정취를 마음껏 누렸다.

대전면 주민자치회 관계자는 "이번 당산제를 통해 지역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주민 간의 유대감을 더욱 돈독히 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가 함께 어우러지는 다양한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신재현 기자

곡성군, 명품농업대학 '스마트농업 과정' 모집

농업환경 대응 인재 양성

곡성군은 스마트 농업기술 확산 및 농업 환경 변화에 대응할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제15기 곡성명품농업대학 '스마트농업과정' 신입생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곡성명품농업대학은 '스마트농업과정'으로 진행되며 민선8기 군정 목표인 '농업인이 살맛나는 부자농촌'을 만들기 위해 스마트 농업기술 확산과 농업환경에 대응할 창의적 인재 양성에 중점을 둔다.

이번 과정은 3월부터 11월까지 총 22회 100시간 동안 스마트농업의 이해 등 이론교육과 선도농가 견학 등 현장교육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응시 자격은 교육을 희망하는 곡성군 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곡성군 귀농 예정자도 별도의 면접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

입학희망자는 곡성군청 또는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입학원서를 내려받아 오는 21일까지 읍면 산업팀에 관련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선발 계획 인원은 30명이며 합격자 발표는 서류심사를 거쳐 27일 개별 문자로 통보할 예정이다.

곡성군농업기술센터관계자는 "명품농업대학 스마트농업반 운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모델 구축과 농산물 고부가가치 창출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곡성명품농업대학은 지역특화작목 전문 농업인 육성을 목표로 2011년부터 14년째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까지 14개 과정 684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으며 매년 평가를 통해 우수교육생을 선정해 농업CEO육성 기반 구축 시범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곡성=김대영 기자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화순군, 차등 적용

화순군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2025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사업 물량은 1차분 140대로 전기승용차 100대, 전기화물차 40대이며 보급 차종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연속하여 화순군에 주소를 둔 주민과 화순군 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 등이다.

전기자동차 보조금은 차종별로 차등 지원되며 전기승용차는 대당 최대 1310만원, 전기화물차는 대당 최대 225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주민은 자동차 제조·판매사와 상담 후 신청서를 작성·제출하고 제조·판매사에서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보조금 신청 방법 및 지원 절차는 화순군청 누리집(www.hwasun.go.kr)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 환경과(061-379-3583)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화순=김선중 기자

